

■ 사찰특성 살린 문화상품 개발하자

“그 절과의 인연 시작”

염주, 목탁, 열쇠고리, 손수건, 악세서리...

전국 어느 사찰에 가도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은 그 빼어난 문화재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울려 깊은 인상을 준다. 돌아갈 때 그 감동을 고스란히 넣어갈 기념품 하나를 고르고 하면 선풍 손이 내밀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느끼려 사찰에 온 외국인들은 처음에 들른 곳에서 기념품을 골랐다면 다른 곳의 관광상품들은 대부분이 같은 물건이라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최근 서울시가 11월 10일부터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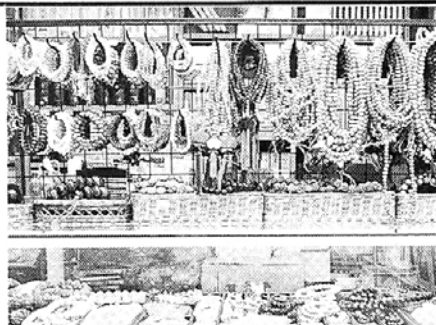
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97 서울문화관광상품전에서 전시 판매할 △전통공예품 토속민속품 △장신구 인테리어 상품 등 첨단문화상품을 공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공예품 공모와 맞물려 사찰도 고유의 문화상품 개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해인사 탁상용 경판 '관람객 호응'

진선·다도등도 불교알리기 활용

관광사찰은 모두가 오랜 전통과 역사·문화적 특색을 지닌 고찰. 따라서 이곳에서 팔리는 기념품은 단순한 상품 차원을 넘어 그 사찰의 특징을 나타내 주고 나아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메신저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품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해인사는 '해인사 과거 현재 미래'를 열면서 해인사의 상징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반야심경관 모형을 이용해 세련되게 만든 목걸이, 염주, 벽걸이, 탁상용 경판 등은 해인사를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의 반응에 고무된 해인



◇전국 어느 사찰에 가도 관광기념상품들은 천편일률적이다.

사찰은 보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해인사뿐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그 사찰의 상징물을 이용해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내소사, 정수사 등 꽃살문이 유명한 곳은 꽃살문을 이용한 차반, 시계, 악세서리 등을, 불국사는 석굴암과 다보탑 석기탑을 소재로, 문수동자로 유명한 상암사, 부모은중경관이 있어 효사찰로 불리워지는 용주사는 효관련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로 유명한 쌍계사, 선암사와 동백으로 유명한 선운사의 경우 다양한 차상품과 동

백꽃을 이미지화한다면 사찰을 널리 알릴수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한편 봉원사는 10월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재를 축소해 시연하고 발우공양을 직접 경험케 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한다.

영산재 뿐 아니라 좌선, 다도, 단기울가 등도 개발하기에 따라 한국 불교를 세계인들에게 인성있게 알릴수 있는 일등 관광문화상품이라는 것이 관광공사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00>

이 맑은 가난 바꾸라

- 久喚山家味 (구학산가미) 오래도록 산 집의 맛을 씹으니
- 元非俗士身 (원비속사신) 원래 세속 선비의 몸 아니다
- 誰將千濁富 (수장천탁부) 누가 천만의 혼탁한 부자 가져다
- 換此一貧食 (환차일빈식) 이 맑게 가난한 한 삶 바꾸라
- 談話傾同座 (담화경동좌) 이야기는 같은 자리에 마음 기울고
- 肝腸絕點塵 (간장절점진) 오장 육부에 한 점의 먼지도 여의다
- 仙姿高出世 (선자고출세) 신선의 자태로 속세를 높이 벗어났으니
- 覺覺佛應緣 (각각불응연) 깨달음의 언덕에 부처님과 가까우리

위의 시는 오암(鰲巖 1710~1792)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법명은 의민(毅授)이고 오암은 호이다. 속성은 김해김씨이다. 원래 사대부의 가문으로 세속적 학문에도 깊은 조예를 가졌다. 특히 시에 있어서는 하나의 생활로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지 끊기면 곧 내가 없고/ 내 생애에 어찌 시 끊기랴/ 유유히 따와 나는/ 세세 생생 서로 따르니 원해(源海)가 무히/ 我生豈絕詩悠悠詩與我 世世願相隨"라 하였다. 제목이 '來詩'이다. 유래가 있는 인연이라는 것이다. 그 아발로 속명적 인연인 것이다. 시의 제목은 '맑은 농부'이다. 육식 없는 농부의 예찬이요,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이른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첫 연에서 산에서의 음식을 즐겨 원래 속사가 아니라 힘이 자신의 처지를 이르려 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행장에 보면 취미한 논밭의 수업을 가난한 아버지의 봉양거리로 보냈다 하니, 대사 자신이 농사를 직접 지은 농부의 신세였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첫 연에서 속세의 선비는 아니라 하면서, 다음으로 이어진 말이 이 청빈함을 바꿀 수 없다 하니 자신의 모습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혼탁한 부자의 표현을 천만은 더 흐리다 하여 '천탁부(千濁富)'라 하였으니 그 표현 자체가 재미 있고, 스님이 세속의 부자를 보는 시각을 대변한 느낌이다. 그것 구가 하나의 맑은 가난(淸貧)이니, 참으로 묘한 대꾸이다. 이것이 바로 시어의 묘미이다. 창자의 먼지를 담화로 씻어낸 다. 이것이 농부의 물욕 없는 대화이다. 옛부터 선비 다음으로 농부의 지위를 높여 놓은 이유를 여기서도 알겠다. 그러나 출세한 신선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모습이다. 이미 깨달음의 언덕에 있는 것이니, 부처님이 응당 가까이 할 수밖에, 스님이 바로 이 농부인 것이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녹차가 치매의 예방치료 및 전자파 유해성 완화, 폐암발생 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 및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식품과학회 주최로 3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4회 국제 녹차 심포지엄에서 학계에 정식 보고됐다.

카테킨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성분의 독성을 억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유효한 치료약이 된다는 것. 그는 앞으로 녹차 소비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역학조사를 통해 카테킨의 치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순재교수는 '녹차의 전자파 방어효과'에

발암물질 NNK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EGCG를 섭취할 수 있다'며 녹차가 폐암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중국 안회농대 차학과 왕두핑교수는 '당뇨병 치료에 유용한 녹차 악티발성성분의 분석과 복합추출에 관한 연구'에서 녹차 성분을 분석한 결과 녹차에 포함된

“녹차를 마시자”

치매예방... 폐암·당뇨병등 억제

일본 도쿄대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신야 가스오(新家一男)박사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카테킨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신야교수에 따르면 녹차로부터 분리된

다당류가 혈당을 낮추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도 녹차의 피부노화 방지를 비롯 대장암, 지방간 및 알코올성 간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당류가 혈당을 낮추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도 녹차의 피부노화 방지를 비롯 대장암, 지방간 및 알코올성 간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기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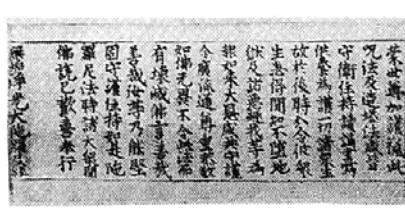
조계종 "창작불가 공모합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원학)는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창작찬불가 공모한다. 전통불교음악인 범패를 계승하고 현대음악과의 조화를 위해 연례행사로 실시되는 창작찬불가공모의 부문은 △합창곡(7분이내) △중창곡(5분이내) △독창곡(5분이내) 등 3분야. 응모자격은 기성 및 신인으로 만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1월 10일~11월 20일. 심사발표는 12월 5일. 문의 (02)739-1830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세계기록유산 지정이 추진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제3차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이 등재될 경우, 곧바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직지심체요절>이

다라니경·직지심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지심체요절>은 이미 1972년 '세계도서의 해' 기념전시회에 출품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우리가 소장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목록 등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것. 위원회측은 "한국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직지심체요절>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꼭 필요하다"며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와 협의, 등록을



◇751년경 제작된 세계최고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한국, 독일, 중국 등이 참가하는 '동서인쇄문화 국제심포지엄'을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 다라니경의 신라인쇄를 확인하고 우리 기록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하는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 우리의 기록유산 목록을 정리, CD-ROM으로 제작, 보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정신문화나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기록물 등 독특한 기록유산을 CD-ROM으로 제작, 영구보존과 함께 일반에게 보급해 기록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석>

불교소재 태극연극

'말라이몽골' 공연

24·25일 과천 시민회관소극장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을 풍성하게 장식할 세계연극인의 큰잔치 '세계연극제 97'이 서울과 과천에서 각각 열린다. 세계연극제는 △공식초청 연극 △공식초청 무용·음악 △세계마당극 큰잔치 △서울연극제 △베세토 연극제 △창무극제예술제 등 6개로 나뉘어 총 120편의 작품이 공연된다.

이중 불자들의 눈길을 끄는 연극은 태극 마라몽극단이 24일(19:00)·25일(15:00, 19:00) 양일간 과천 시민회관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말라이몽골'. '말라이몽골'은 프라 말라이(Pra Malai) 화장을 앞두고 매일저녁 열리는 장례식 절차에서 부르는 노래를 소재로 해 젊은 나이에 죽은 연인이인 말라이와 말리의 과거 행적을 통해 인과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말라이와 말리



◇태극 마라몽극단의 '말라이몽골' 중 한 장면. 두사람은 영혼이 되어 프라 말라이라는 스님을 만난다. 스님과 함께 극락과 지옥 그리고 그들이 생활했던 여러 곳을 방문하며 과거 방탕했던 자신들을 참회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세계연극제에 공식초청된 국내의 대표적인 현대무용 6편이 오는 14, 16, 17일 공연된다. 이중 불자 김복희교수(한양대)가 이끄는 김복희무용단은 16일 서울 대학로 문예회관극장에서 소월의 시 '진달래꽃' '초혼' 등을 통해 인간의 만남과 사랑 이별 그리움과 죽음 등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진달래꽃'을 무대에 올린다. (02)766-0766

문화소식

피아노-음-대금의 만남

피아노와 소리(唱)와 대금이 만나는 이색무대가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임동창-장사익-이성강 공감콘서트'가 바로 그것. 지난해 '안숙선-김덕수의 공감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무대다.

각자의 무대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은 우리 전통음악을 기본축으로 각기 다른 삼색(三色)의 음악을 선보인다. '피아노와 사물' '소리와 사물' '피아노와 대금' '피아노와 소리' '죽흥JAM' 등 장르를 허물면서 국악과 양악이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번 공연은 초기를 공연무대를 찾은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대 다도교과목 신설

경기대학교는 2학기부터 3학점짜리 교양과목 '다도문화'를 신설했다. 신청학생은 180명. 강사는 정영선씨(한국사문화연구소).

이름 읽기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일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범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문 32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범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은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살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고한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은 말'인 까닭이다.

이름 읽기 ②

삶은 고퍀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4년/범어집

해원 위를 신국문 2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佛)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 읽기 ③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재일 저를 신국문 30쪽 / 값 8000원

짧은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기다기 산이 딱히 났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명과 직학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랑(金剛)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랑.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이다.

- 본문 중에서 -